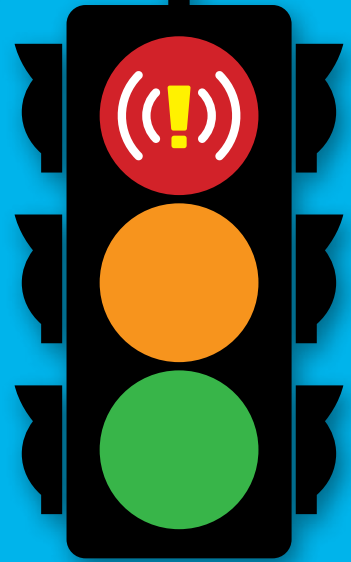


응급처치



자연재난

- 황사 · 미세먼지
- 폭염
- 태풍 · 집중호우
- 지진
- 대설 · 한파

사회재난

- 화재
- 화학물질 유출사고
- 방사능 재난
- 해양사고

기타재난

- **응급처치**
- 교통안전 (통학버스 등)
- 민방공 훈련
- 폭파 테러
- 화학 테러
- 생물 테러
- 방사능 테러
- 무기에 의한 테러



한눈에 보는 안전매뉴얼

응급처치 시 행동에 관한 카툰형 이미지입니다.

1 반응 및 호흡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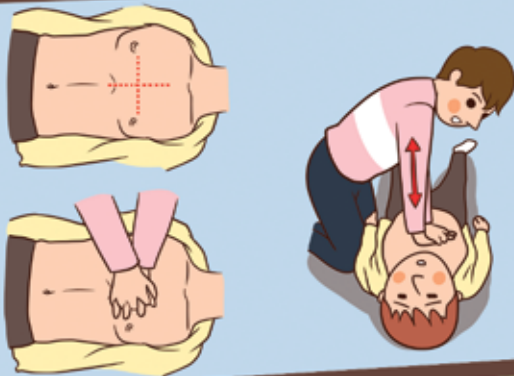


2 도움 및 119 신고 요청

"119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3 가슴압박 30회 시행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 방법을 알면 안전해요!

4 인공호흡 2회 시행

▶ 인공호흡 방법

- 1 머리를 젖힌다.
- 2 환자의 코를 막는다.
- 3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서서히 (1~2회) 공기를 불어넣는다.

5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1 응급처치의 정의

○ 응급처치의 개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후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 응급처치의 중요성

구조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삶과 죽음, 회복기간, 장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① 처치자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② 응급 상황일 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한다.
- ③ 함부로 물이나 음식물, 약을 먹이지 않는다.
- ④ 환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을 하지 않는다.
- ⑤ 환자의 몸에서 나온 구토물이나 혈액 등이 자신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되, 이로 인해 2차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옮기지 않는다.
- ⑦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인의 처치에 맡긴다.

3 응급환자의 개념 및 응급증상

○ 응급환자의 개념

질병, 부상,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 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 손상 등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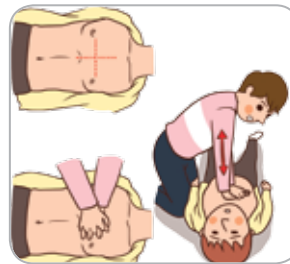
구분	학생 행동 요령
응급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환자의 전반적인 모습, 행동,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
상태 파악 및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판단 ○ 환자의 상태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를 걸어 문의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
119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기 ○ 구급차를 불러야 할 시점을 놓치지 않음 ○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반 차량으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경우 2차 부상 등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
안전한 환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요원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가급적 환자를 옮기지 않음 ○ 현장이 위험하면 이차적인 손상에 주의하면서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응급처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취할 경우 효과가 가장 큼



1 반응 및 호흡 확인



2 도움 및 119신고 요청



3 가슴압박 30회 실행



4 인공호흡 2회 실행

인공호흡 방법

- ① 머리를 젖힌다.
 - ② 환자의 코를 막는다.
 - ③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서서히(1~2회) 공기를 불어넣는다.
-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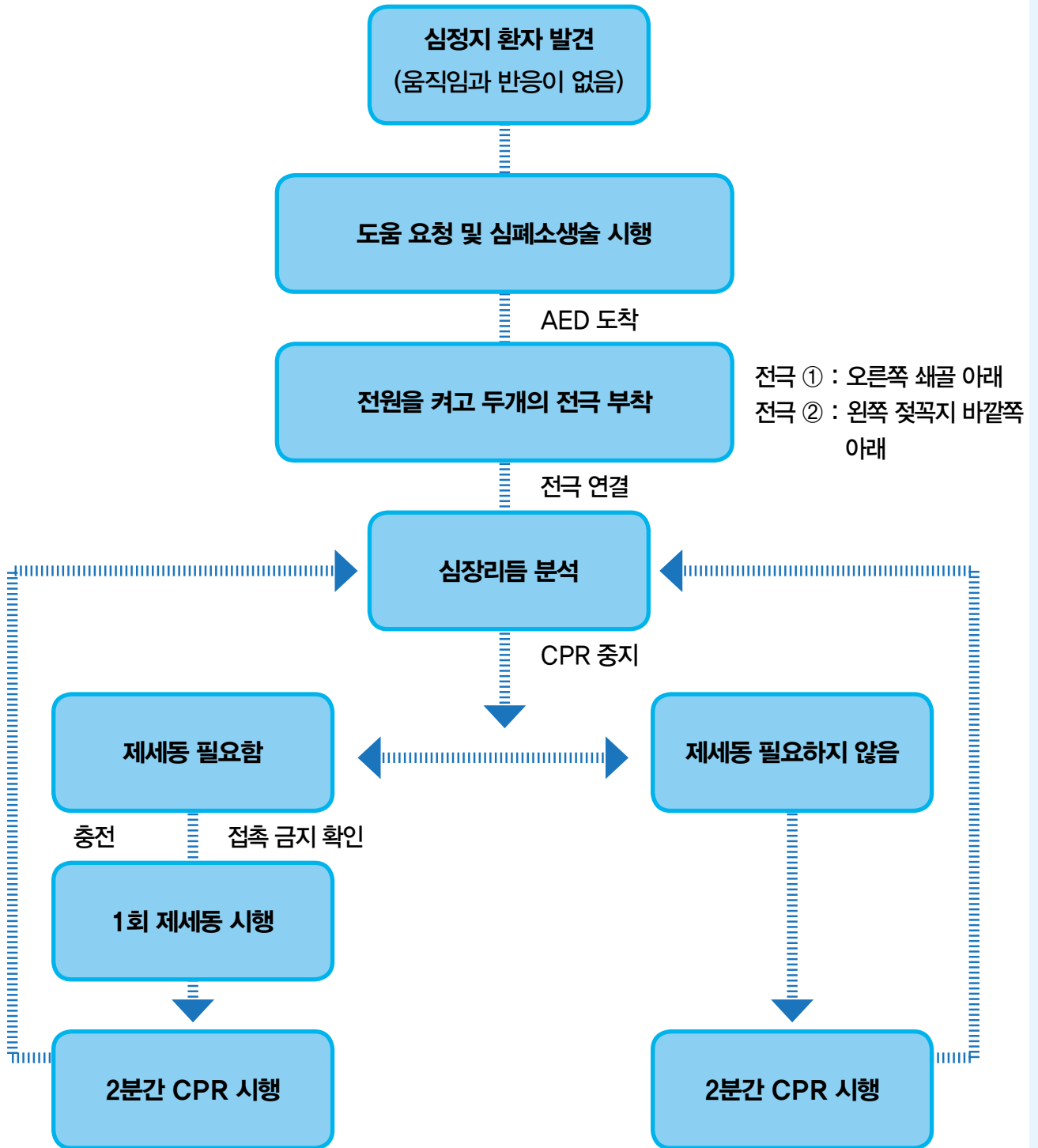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방법

구분	학생 행동 요령
<p>상황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소실 등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
<p>구급차 도착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 119 상황센터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급차 도착 전까지 전화를 통해 응급처치 요령을 지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응급처치 실시 ▶ 의식, 호흡, 맥박 등을 확인하여 의식이 없으면 기본소생술을 먼저 시행해야 하고, 의식이 있다면 상황별 응급처치를 시행
<p>전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착하고 명확하게 사고가 난 장소, 주요 건물, 사건이나 어떤 종류의 사고 인지를 말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위치정보 동의서비스를 활용 ○ 환자의 상태와 부상자 수,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 등을 통보
<p>신고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대가 출동 후 관련 정보를 다시 물을 수도 있으므로 신고 후 전화를 사용 하지 않음 ○ 먼저 전화를 끊지 않음
<p>응급상황 행동원칙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인지의 확인 및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구조요청(119) ○ 안전한 장소로 환자 이동(척추손상 예외)-환자 응급처치 실시

5 참고사항

! 심폐소생술 순서



환자가 소생되어 움직이거나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① 전원을 켜다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③ 심장리듬 분석



④ 제세동 시행



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